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김소현



필자가 국제 교류원으로 속해 있는 ‘홋카이도’는 한국의 우호지역 네 곳과 교류를 실시해오고 있고, 제주와는 올해 벌써 우호제휴 체결 5주년을 맞이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라곤 비록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국제 교류원 생활을 계기로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류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2년 전 겨울, 제주민요보존회 공연단 분들과 행사를 진행했던 일은 각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국 땅에서 들어보는 정겨운 가락은 물론이며, 삿포로를 방문해 주신 제주도 어머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진행했던 제주도 소개 세미나에 백 여명의 시선이 집중되던 순간들까지. 게다가 팬데믹 이전에 개최된 그 행사는 홋카이도와 제주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정서적 울림을 공유하던 ‘마지막 현장’이기도 했다.

시대는 불과 2년 사이에 크게 변했다. 올해 탐라문화제에서는 홋카이도 출신 성악 전공생과 제주 출신 성악가가 듀엣 공연을 펼쳤다. 홋카이도 측이 사전에 촬영해 보낸 소프라노 공연 영상에 맞춰 제주도 측의 바리톤 성악가가 함께 노래하는 ‘비대면 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아쉽게도 본 공연마저 동영상 파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작은 화면 너머로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고, 국경을 초월하는 음악의 힘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와 일본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업무 중 하나로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를 앞둔 홋카이도 측 학생들에게 제주도의 매력을 소개하는 연수를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 포럼마저 랜선으로만 개최되다 보니 학생들이 귀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세상에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아름다운

명소들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을 사진과 말로만 소개하며 학생들을 약 올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교류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본디 ‘끈끈한 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던가. 양국을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제주도에 있는 홋카이도 민요 ‘소란부시’가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홋카이도에서는 ‘제주 민요’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를, 더 나아가 두 지역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